

## “기름 넣기 겁나” 치솟는 유가... 값싼 주유소 앞은 대기행렬

휘발유 1ℓ 당 전국 평균 가격 11개월 만에 1700원 선 돌파  
 “더 오르기 전에...” “싸다길래 왔다” 운전자들 근심 깊어

“기름 넣을 때마다 덜컥 겁부터 나오. 당분간 외출은 자제하려고요.”

16일 낮 시간대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대형주유소. 유가가 불과 한 달 사이 1ℓ당 100원 이상 치솟자, 비교적 저렴하다고 입소문을 탄 주유소 앞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출입구 2곳 모두 주유소에 들어서는 차량들이 줄지어 섰고 갓길 1개 차선에도 4~5대가 정차하기 일췌였다. 반면 전국 평균 유가에 근접한 또 다른 주유소에는 1시간 넘도록 차량 1대 들어서지 않았다.

시민들은 유류비 부담이 호소하며 ‘기름값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넣으러 왔다’, ‘몇 십 원이라도 아끼려고 멀리서 찾아 왔다’고 말했다.

주유 단말기 앞에 선 한 시민은 신용카드를 손에 쥔 채 한참 망설인다. 주유에 나섰다.

또 다른 승용차 운전자는 휘발유 단위 가격표에 당황한 듯 고개를 가웃했다.

승합차에 7만원 어치 경유를 주유하던 유모(64)씨는 “확실히 기름값이 올랐다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 영업용으로도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부담이 더 크다. 걱정이 앞선다”면서 “아무래도 불필요한 외출이나 여행은 당분간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형 SUV차량 운전자인 박모(35·여)씨도 “생활비에서 유류비 부담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아이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다녀오기 전후 피부로 느껴지는 가격 차이가 크다”고 했다.

회사원 최모(46)씨는 “예전에는 주유할 때마다 가득 넣었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 이제는 필요한 거리 만큼만 수시로 주유소를 찾고 있다”면서 “이 곳 주유소가 평균값보다 싸다고 소문

나 점심 시간을 이용해 일부러 찾아왔다”고 말했다.

준대형승용차 운전자인 유모(35)씨는 “3주 전보다 휘발유 가격이 100원 이상 오른 것 같다. 장거리 주행이 많지는 않은 편인데도 유가가 쌀 때보다 한 달 유류비가 10만~15만 원 가량 더 들 것 같다”고 했다.

주유소 직원은 “가격이 쌀 때 매입해 재고로 둘러앉던 기름이 있어 평균가보다 더 저렴하게 팔 수 있다. 최근엔 유류 도매가도 한 달 전보다 140원이 높아졌다. 재고가 다 떨어지면 소비자 판매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유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산 이 주유소에 하루 평균 200대가 더 찾아와 분반다”고 전했다.

이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 집계 기준 1730원을 기록, 고공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날 들어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만에 1700원 선을 넘겼다.

광주 주유소 245곳의 휘발유 평균가 역시 이날 1ℓ에 1694.17원이다. 최근 3개월 사이 유가



연일 유가가 치솟고 있는 16일 광주 서구 한 주유소에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이날 들어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11개월 만에 1ℓ당 1700원 선을 넘어섰다.

가 가장 싼 7월 1일 평균 1558원보다 136원 올랐다. 같은 기간 경유 역시 1ℓ당 가격이 1366원에서 1547.68원으로 181원 가량 상승했다.

주유소 745곳이 영업 중인 전남도 1ℓ당 휘발유 평균 값이 1712.65원으로, 7월 1일(1579원)보다 133원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경유

역시 1ℓ당 1393원에서 1561.11원으로 168원 가량 인상됐다.

이처럼 유가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이날 말 종료하려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할 지 검토 중이다. 이슬비기자

### ‘보폭 넓히는’ 이낙연... 2박3일간 광주·전남행

귀국 후 첫 지역 행보로 호남을 방문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달여 만에 다시 남행열차를 타고 광주·전남을 찾았다.

1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부터 1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아 각계 인사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6~18일, 여성·청년·종교계·학계·조합장 등과 격의없는 대화  
 17일 순천 시작으로 전국 강연...내달 귀국후 첫 언론토론회

우선 첫날인 16일에는 여성과 청년, 상인과 광주·전남 전직 농협조합장 등과 만나 격의없는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이어 17일 오전에는 광주에서 종교계와 학계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오후에는 전남으로 옮겨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지방자치학회 초청으로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대한민국 생존전략’에 대해 강연한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해 6월부

터 1년 동안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 유학하며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라는 책을 펴낸 바 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14주기인 18일에는 김 전 대통령이 탄생한 신안군 하의도를 방문, 신안군이 주최하는 추도식에 참석하고 하의도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어 목포에서 도지사 당시 함께 일했던 도청 간부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귀경할 계획이다.

특히 강연은 17일 순천을 시작으로 부산과 전주, 서울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 뒤 영·호남 거점인 대구와 광주에서도 가질 예정이다. 9월말 추석 연휴 전에는 광주에서 강연과 함께 귀국 이후 첫 언론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호남을 잇따라 방문하고 최근 국내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비공식 선거 사무실을 차린 이 전 대표의 행보를 두고 가깝게는 내년 총선, 멀게는 2027년 대선을 겨냥한 세력 결집과 정치적 보폭 넓히기로 보는 시각이 적잖다.

한편 4선 의원에 전남지사,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 전 대표는 지난 6월24일 귀국한 후 같은 달 30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 영광군 범상면 소재 선천 묘소 등을 잇따라 참배한 바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을 둘러봤고, 종교계 인사와 재야원로 등과도 만났다.

변용일기자

### 지스트, ‘상온 초전도체’ 검증 ‘시동’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총장 임기철)는 최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온·상압 초전도체’에 대해 과학적 검증이 가능한지 논의하기 위해 지스트 내부의 관련 연구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완전히 없어지는 물질이다. 손실 없이 전력의 수송과 저장에 가능하며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자기부상열차, 양자컴퓨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꿈의 물질’이다.

하지만 초전도 현상은 상압의 극저온(-196도)이나 고압(270GPa)의 상온에서만 관측이 가능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상온·상압 초전도체의 개발은 학계의 난제 중 하나로 남아 있는 실정이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상온·상압에서 초전도성이 가능함을 주장한 논문이 발표돼 세계적인 화제가 됐으나, 동료 연구진과의 교차 검증을 거치지 않는 논문 사이트인 ‘아카이브’를 통해 발표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스트 이광희 연구부총장은 ‘상온·상압 초

전도체’에 대한 과학적 검증 가능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지난 10일 개최했다.

이날 재료, 이론, 저온실험 분야를 전공한 지스트 내부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최근 발표된 3편의 상온·상압 초전도체 논문들에 게재된 실험 결과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적 분석, 검증을 위한 자체 시료 제작 가능성 여부, 과학적 검증의 의미 등 논의가 오갔다.

회의를 주최한 이 연구부총장은 “초전도체에 대해 학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검증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만 연구중심대학으로서 과학계의 주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장은 상온·상압 초전도체에 대한 내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